

지역의 자부심으로 탄생한 첨단의 미학,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



충북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청주대학교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이 8월 개관합니다.
354억 원에 이르는 건립비용과 5,400여 석에 달하는 도내 최대 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은 청주대 캠퍼스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 최고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제 수준의 스포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일반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의 자부심과 공공성을 동시에 녹여내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에 부합하기 위해 축열식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를 실현시킨 청주대의 고민과 노력이 건물 곳곳에 묻어납니다.
청대인과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에서
우리는 글로벌 대학을 향한 청주대학교의 포부를 봅니다.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우리 전통과 문화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다

Global Today

충북지역의 새로운 문화·체육공간,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

WOW People

흙으로 삶을 빛는 김기종 동문
열정과 독심의 금융인, 윤승욱 동문



지역문화를 꽃 피우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열린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향해
쉽 없이 달려가는 청주대학교에서
우리는 세계를 보는 탁월한 안목과
넓고 깊은 시각을 배웁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어
그것을 다시, 새로운 시대의 문화로
재창조하는 일야말로
대학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창이 되고자,
지역의 자부심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청주대학교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너른 광장이 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소식지의 새로운 제호인 (WOW 창대)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OW 창대
Window of the World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3 Summer vol. 66

Contents

02 President's Message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 06 Special Opinion 직지(直指)의 숨결로 더 풍요로운 도시, 청주
- 08 Academic Union 청주대, 충북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보급에 앞장서다
- 10 Special Report 청주대학교 박물관 답사기

Global Report

- 14 Global Today 충북지역 문화·체육 트렌드를 바꿀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
- 18 Global Challenge 2013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 팀별 후기
- 20 Local Together 제10회 우암골 경로대잔치 현장 스케치

WOW People

- 24 청인보(淸人譜) 제1장 흠으로 삶을 빛는 김기중 동문(공예디자인학과 83)
- 28 청인보(淸人譜) 제2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끄는 이상렬 교수(반도체공학과)
- 30 청인보(淸人譜) 제3장 열정과 독심의 금융인, 윤승욱 동문(경영학과 78)
- 32 청인보(淸人譜) 제4장 잔잔한 울림으로 세상을 바꾸는 김영상 동문(신문방송학과 90)
- 34 청인보(淸人譜) 제5장 무대 위 진짜 배우를 향한 꿈, 한새봄 학생(연극학과 10)

36 Photo Essay 날개가 없어도 낙하할 수 있는 용기

Issue & News

- 38 Focus On 개교 66주년 기념식 개최 외
- 42 News Brief 영화학과, 한중합작 단편영화 제작 외
- 45 Special Lecture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 46 People News 교수소식 정상수 교수, 교양기초교육 우수 콘텐츠 선정 외
동문소식 남기에 동문,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장 취임 외
-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방법 안내

WOW 창대 2013년 여름호(통권 66-2호)

발행일 2013년 8월 14일 | 발행인 김윤배 | 편집인 윤기택 |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부상하는 혁신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여름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빗줄기가 만물을 성장시켜주듯이 청주대학교 구성원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여름이기를 바랍니다.

청주대학교는 지난 겨울 새로운 비전을 창출했습니다. '2020년 20위권 달성,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도약'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지난 봄부터 대학 전 구성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개교 66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는 청암 김원근 선생과 석정 김영근 선생의 창학정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6년 동안 9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해 온 청주대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청주대학교는 특히 중부권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3,0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자해오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화학과를 비주얼아트학과로 개편해 학생들이 순수예술에 기반을 두면서도 실용학문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약공학과를 신설하고, 유전공학과는 바이오메디컬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치위생학과와 의료경영학과를 각 10명씩 증원하면서 충청북도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8월에는 청주대학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정문 확장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5,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 최대 규모의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도 개관합니다. 2013년은 이렇듯 청주대학교가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과 글로벌 중심대학을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혁신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청주대학교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원근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우리 전통과 문화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다

한 시대는 문화와 환경을 폭넓게 끌어안고,
당대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야 합니다.
지나간 하나의 시대가 창조해낸 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 되고 유구한 문화가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와 순환, 공유와 조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는 한 단계 더 발전하며,
수준 높은 전통과 문화라는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전통과 문화의 아름다운 선순환 속에서
청주대학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선조들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 환희와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진정한 글로벌의 실현을 위해
충북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끌어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08 Academic Union

충북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보급에
앞장서는 청주대학교

06 Special Opinion

직지(直指)의 숨결로
더 풍요로운 도시,
청주



10 Special Report

청주대학교의 자부심,
청주대학교
박물관 답사기

宣光七

Special Opinion

가장 오래된 기록의 역사 직지(直指)의 숨결로 더 풍요로운 도시, 청주

‘직지(直指)’는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다. 인류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나라의 후손이 지니는 그 자부심이 청주에서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직지의 고향 청주는 뿌리 깊은 고인쇄 출판문화의 도시답게 오래도록 직지의 가치를 빛나게 할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실천해오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외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직지를 찾는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의 역사를 찾는 일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제대로 써 내려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영향력 있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금속활자 발명’이다. 양피지에 지식을 기록하던 시대에 책이란 것은 부와 권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였다. 금속활자로 몇 번이고 책을 찍어내면서 많은 사람이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축적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금속활자의 역사는 독일이 문을 연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인류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이들은 바로 우리 선조였다. 기록으로만 그 존재가 알려진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은 1455년 독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200년 이상 앞섰고,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도 78년이나 앞섰다. 특히 청주에서 만들어져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그 유구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2년마다 열리는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1377년 인쇄에서

200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까지

직지의 원제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불교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선(禪)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고려 시대 승려들의 교과서였다. 1372년 고려 공민왕 때 백운 화상이 원나라에서 받아 온 〈불조직지심체요절〉의 내용을 늘려 상하 두 권으로 만들었으며, 청주 흥덕사에서 제자와 함께 금속활자로 인쇄했다. 그런데 직지는 왜, 어떻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게 된 것일까? 1887년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가 한 상인에게서 구입한 고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지였다. 1911년 플랑시의 수집품들이 파리 드루오 경매장에서 매각될 때 직지도 단돈 180프랑에 골동품 수집가였던 앙리 베베르에게 낙찰되었다. 베베르 사후인 1952년에는 그의 손자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 그 후로 직지는 ‘하권’ 한 권만 유일본으로 동양문헌실에 잠들어 있었고, 프랑스인 사서가 한국인 동료 박병선 박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직지가 한국의 것이며 금속활자로 인쇄됐다는 것을 고증한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1972년 ‘금속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직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에 있지 않는데도 선정된 유일한 예이다.

직지의 탄생지 ‘흥덕사지’를 발굴한

청주대학교 박물관

직지 하권의 마지막 장에는 “청주 흥덕사에서 선광 7년 1377년(고려 우왕 3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문구가 있다. 충청북도의 의뢰를 받아 1983년부터 불교 유물의 출토지로 알려진 운전동 절터를 발굴해온 우리대학 박물관은 1985년 운전천주택지조성공사가 진행되던 중 ‘흥덕사’라고 선명하게 음각된 청동금구 파편을 발견했다. 이후 조사단은 정밀조사를 벌여 청동보당용두 2점을 비롯해서 당시 승려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발 등 여러 점의 청동유물을 찾아냈다. 이 청동유물에도 발굴터가 흥덕사임을 입증해주는 40자 명문(皇統十年 興德寺, 황통십년 흥덕사)이 새겨진 것을 확인했다. 이렇듯 우리대학은 발굴과정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의 고향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문헌정보학과는 직지활자의 주조방법인 ‘밀랍주조법’을 완벽하게 복원하여 세계의 이목을 또 한 번 집중시키기도 했다.

直指

직지 활자복원관



청주의 모든 에너지와 발전전략의

시작점, 직지

청주시와 청주시민에게 직지는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직지계’를 설치하여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직지를 전담하여 직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직지문화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한편, 대규모 직지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기록문화의 연구와 교류, 전시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기본방향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직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콘텐츠, 교육·게임프로그램, 특화상품을 개발해 관광과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청주시의 직지 관련 사업

청주직지축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기념하여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고인쇄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행사와 학술행사, 공연행사 등이 펼쳐진다.

직지포럼 | 직지를 주제로 청주시민들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민간주도로 직지세계화추진단도 결성되었다.

유네스코직지상 |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 보호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상한다. 세계기록유산 최초의 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유일한 상이다.

직지 복원작업 | 직지 하권의 복원을 마무리하고 상권 중 일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총 38장 분량인 직지 하권 가운데 15~29장에 이르는 2차분 복원을 마쳤으며, 나머지 3차분 복원은 오는 12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직지축제 미디어전시관 전경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직지찾기운동’

청주시 참여자치연대(구 청주시민회)는 국내 어딘가에 있을 직지 원본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직지찾기운동은 1997년 3월 청주시민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98년 10월부터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직지찾기 전담반을 두어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직지찾기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직지가 해외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는 해외에까지 직지찾기운동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Academic Union

청주대, 충북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보급에 앞장서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술총서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 집필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지난해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학술총서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를 간행하여 전국 주요 박물관 및 도서관, 연구자 등 총 400여 곳에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는 지난 2002년 발간된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에 이어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학술총서다. 이번 총서에 수록된 내용의 범위와 주제는 임진왜란 이전(1392~1592) 목판인쇄기록물로 한정하였으며, 시기 및 종류가 다른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학술총서를 간행할 계획이다.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의 집필을 맡은 우리대학 문헌정보학과 김성수 교수는 평소 고려의 금속활자부터 조선시대 기록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활동을 펼쳐온 장본인이다. 김 교수는 총서의 내용 구성을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四部)로 구분하고, 각 부를 다시 주제별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간행현황 및 주요 간행물에 대한 해제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총서의 부록에는 조선전기의 주요 목판인본 목록과 소장처를 함께 수록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는 조선전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지의 가치와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청주대의 노력

1377년 고려 우왕 3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정한 청주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2년마다 직지축제와 직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직지의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열리는 직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청주직지축제추진위원회와 우리대학은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12년 '1377 창조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주직지축제에서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100여 명의 학생들은 행사기간 중 자원봉사 및 운영요원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대학 각 학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다. 협약에 의해 양 기관은 직지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 중이다.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고인쇄술의 도시 청주에 뿌리를 둔 대표사학으로서 청주대학교는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에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흥덕사지를 비롯한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발굴사업 참여는 물론, 직지 홍보지도자 양성, 학술총서 간행 및 세미나 개최, 유네스코 직지 상징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해온 청주대학교의 행보는 지역문화를 지키는 대학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04년 제정된 유네스코 직지상은 2005년 체코 국립도서관을 시작으로 2년마다 수상국을 발표하고 있다. 역대 수상국으로는 오스트리아 과학학술원 음성기록보관소,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 호주 국가기록원 등이 있으며, 2013년 올해의 수상기관으로는 멕시코의 기록보관 NGO 아다비가 선정되어 9월 13일 시상식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11년 시상식부터 사용된 직지 상징 디자인은 우리대학 문화산업디자인혁신센터 이길환 부센터장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이길환 부센터장은 유네스코의 공식문양과 서식을 기본으로, 직지의 정신이 담긴 한자와 영문로고, 한글을 함께 조합해 상징의 배경을 만들고, 바탕을 황금색으로 처리해 품위를 높였다. 거기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7호 안치용 한지장이 닥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7호 홍중진 배첩장이 직지 브랜드 로고를 사방 연속 무늬로 염색한 실크 원단에 배첩용 한지를 붙여 완성하였으니 직지 상징 자체의 완성도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 받으며 우리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대학 문화산업디자인혁신센터 이길환 부센터장이 디자인한 유네스코 직지상징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일찍이 문화콘텐츠사업을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큰 21세기형 고성장산업으로 정의하고, 창조력이 돋보이는 스토리텔링 발굴에 나선 청주시는 '전국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올해로 10년째 개최하고 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청주 및 청원 지역 고유의 문화원형(역사, 문화유산, 자연, 지리, 민속, 구비전승, 인물, 생활 등)을 소재로 한 미공표 이야기 소재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 공모전에서 청대인들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9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명현 학생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아띠이야기'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지역에서 전해지는 '용개들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설화 속에서 신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왔던 용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친근한 캐릭터로 등장시키고 있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관점으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린 청대인의 사례는 이전에도 계속됐다. 앞서 열린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수상자 역시 우리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민두홍 학생이었다. 그의 작품 '두껍아! 두껍아!'는 오창과 오근장 일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 '은혜 깊은 두꺼비'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용 시나리오다.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다양한 장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캐릭터 개발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민두홍 학생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얼마 전 청주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식에서 모범학생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청주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이야기 창작물을 발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청대인의 노력이 유럽의 수많은 전설과 신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소설 〈반지의 제왕〉에 견줄 새로운 콘텐츠로 성공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



우리대학 인문대학 학생들은 청주직지축제의 자원봉사 및 운영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속활자 복원 시연회



Special Report

캠퍼스 문화유산 답사기

중원의 보물이자 자부심, 청주대학교 박물관

충청지역 최초의 박물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청주대학교 박물관. 선 굵은 발굴현장을 이끌며 흙 아래 역사를 재구성하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재현해주는 타임머신이 되어주고 있다. 청석학원의 탄생과정은 물론,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원통뒤주와 우윳빛이 우아한 달항아리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대학 캠퍼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이다.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선생의 정신을 기린 박물관 내 청석기념관



총 2,5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박물관 내부

拖 丁巳七月

충청지역 1호 박물관, 청주대학교의 자부심

1967년 11월 10일 개관한 청주대학교 박물관은 충청지역 최초의 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개관 당시 충청남북도에는 그 어떤 박물관도 없던 터라 충청지방에서 수집된 유물 300여 점을 선보이며 개관한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대한 기대는 상당했다. 지금의 도서관 건물 안에 강의실 2개를 터 유물을 전시하다 독립된 건물을 지어 이전한 것이 1977년, 대학 박물관으로서 독립된 건물을 갖추게 된 것은 당시에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현재 전국의 90여 대학 박물관 가운데 독립된 건물에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개관 40주년을 앞둔 지난 2004년 청주대학교 박물관은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전시실에 터치스크린과 그래픽 패널의 영상기기를 설치하는 등 전면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2005년 11월 재개관했다. 박물관 1층에는 청석기념관(설립자 기념관)과 민속공예실, 2층에는 고고미술실이 자리하고 있다. 민속공예부터 역사자료에 이르기까지 2,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박물관이어서 만날 수 있는 유물들

대학 박물관이라는 이유로 별 기대 없이 청주대학교 박물관을 둘러본 사람들은 이런 감상평을 내놓는다.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을 줄 몰랐다." "처음 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소장된 선사, 역사, 민속, 공예자료들은 그 가치를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소중한 유물들이며, 유물마다 각 시대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특히 수준급의 청자와 백자를 비롯한 도자기류가 많은데, 미술사를 연구하는 대학원생과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학자 등이 이곳의 도자기를 만나기 위해 자주 찾는다고 한다. 박물관 입구 왼편에 있는 '남석교 석조견상(南石橋 石造犬像)'은 일제강점기를 잘 버티어낸 상징적인 다리 장식물이다. 조선 중기 이전에 건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남석교는 일본인에 의해 매몰되었으나, 교안(橋岸) 양쪽에 있던 석조견상 4기는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 중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2기는 그 모습과 상태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다. 박물관 로비에 있는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23호)'은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비로자나불상 가운데 가장 완벽한 불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금강반야경 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보물 720-2호)'은 '금강반야경소론찬요'를 다시 풀이한 책으로,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밀양 박씨 문중의 한 부자(눌재 박경영과 강수 박훈)의 문집을 만들기 위해 판각한 '눌재강수유고판목(訥齋江搜遺稿版木,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77호)'도 이채로운 유물이다. 손잡이 끝이 세밀하게 삼각처리 되어 있는 백제시대의 '금은상감환두대도(金銀象嵌環頭大刀)'는 외부로 특별전시를 많이 나가는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일본학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보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역사의 씨줄과 날줄을 맞춘 역사적인 발굴작업

50여 년 가까운 청주대학교 박물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발굴' 이야기다. 1985년의 청주 흥덕사지(사적 315호) 발굴은 단연 우리나라 최고의 발굴작업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 발굴터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를 인쇄한 곳임을 확인해주었고, <직지>의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도 이 발굴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발굴 당시 금당터와 강당터, 탑터와 이들을 둘러싼 화랑터가 일부 발견되었고, 각종 기와 전돌, '서원부 흥덕사(西原府興德寺)'라 쓰인 쇠북, 청동그릇 등이 출토되었다. 1977년부터 1991년까지는 5차에 걸쳐 중원 미륵리사지(사적 317호)를 발굴하여 석실금당을 중심으로 한 대원사 터와 미륵대원 터를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충주댐 수몰지역의 유적유물조사를 비롯해 괴산 화양서원지, 제원(현재의 제천) 함참리 고인돌 유적지, 창원 산덕리데시, 청주 것대산봉수터, 보은 법주사, 청주 남석교 등을 발굴하여 사적이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①

◆ 청주대학교 박물관 둘러보기

청석기념관 | 우리대학 설립자인 청암 김원근(1886-1965), 석정 김영근(1888-1976)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전시공간이다. 1986년 11월 청암 김원근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했다. 1924년 대성보통학교(대성초)를 세우면서 설립된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청주의 대표적인 사학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모자, 통장, 도장 등 청암과 석정 두 형제의 손때 묻은 유물 2백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청석학원 산하 각급학교(대성초, 대성중, 대성여중, 대성고, 대성여상, 청석고, 청주대)와 관련된 자료 1백여 점도 귀한 자료이다. **민속공예실** | 생활용품, 고지도, 떡살 등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옛 생활 도구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이 상당하다. 충주 지방에서만 생산되어 '충주반'이라고 부르는 '개다리소반',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원통뒤주' 등 이미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우리 삶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고고미술실** |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의 유물을 비롯해 신라,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토기들이 저마다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 빛과 문양이 우아한 '분청사기상감연꽃무늬대병'이나 선이 완벽한 경지에 이른 '달항아리' 등을 마주하면 아득한 시절 찬란했던 우리 문화의 힘을 느끼게 된다.



취재 도움 : 청주대학교 박물관 박상일 학예사(역사학과 76학번)

寺鑄字印 宣光七



기록과 발견의 현장, 청주의 또 다른 박물관들

TIP

중원문화를 꽃피운 지역, 청주에는 의미 있는 박물관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 국립청주박물관은 충북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직지>의 탄생지에서 세계의 인쇄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청주대학교 박물관 오른편엔 국립청주박물관이, 왼편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다. 두 박물관에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로 세상의 빛을 본 다양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국립청주박물관

충북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곳

우암산 동쪽 기슭의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국립청주박물관은 중원문화의 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한반도 북서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인 충북지역은 북서지역과 남동지역 사이에서 문화의 결절지가 되어왔으며, 국립청주박물관은 이러한 특징이 묻어나는 다양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인되는 동굴유적 등의 구석기유적을 시작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2,300여 점의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다. 2012년 12월 새롭게 개관한 기증전시관에는 기증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서와 도자기, 토기, 복식, 민속품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아외전시 | 청주 용담동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무덤을 이진, 복원하여 전시. 문인석, 부도, 연자방아, 계단돌, 해태상 등 다양한 석조유물을 비롯해 통일신라 석관묘, 고대 노지 복원품 등 전시

특별전시 및 문화행사 | 매년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시회를 비롯해 어린이 박물관학교, 가족음악회, 공예교실, 봄문화축제 등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 박물관 전시품을 관찰한 뒤 직접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 운영

정보자료관 | 13,300여 권의 도서와 700여 점의 영상자료를 갖추고 지역주민과 관람객에게 문화학습공간과 학술정보 제공

박물관 자체가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기념비적인 작품

1987년 10월 개관한 국립청주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김수근** 선생(1931~1986)이 설계한 한국 현대건축의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1979년 설계될 당시부터 '현대건축이 한국의 전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만한 작품으로 평가 받았을 정도로 그 의미가 깊다. 건축을 '빛과 벽돌이 짓는 시'라 여겼던 김수근 선생은 국립청주박물관 곳곳에 '소중한 문화재의 보관처'가 지녀야 할 위엄과 아름다움을 녹여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의 고향에서 동서양 인쇄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세계문화유산인 <직지>의 고향에 터를 잡은 청주고인쇄박물관은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1985년 흥덕사지 발굴로 <직지>의 간행자인 흥덕사지가 입증되고, 그 터를 정비하면서 지난 1992년 3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직지>의 가치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서와 인쇄기구, 흥덕사지 출토유물 등 3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등 각국의 인쇄박물관과도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인 <고인쇄문화>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학술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직지와 흥덕사지 |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흥덕사지 출토 유물 전시

직지금속활자공방 | 밀랍인형으로 금속활자 제작과정 재현(글자본 선정, 밀랍정제, 밀랍자 만들기, 금속활자 만들기, 조판하기, 인쇄 및 교정보기, 책 꿰매기의 과정)

인쇄문화실 |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인쇄문화 발달과정 전시

동·서인쇄문화실 | 동서양의 인쇄문화, 현대의 인쇄문화, 미래의 인쇄문화 이야기.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근대의 다양한 인쇄기 전시



Glocal Report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품어 안으려는 '글로벌'과 지역과 함께 세계를 꿈꾸는 '달로컬'이 공존하는 이곳,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14 Global Today

충북지역
문화·체육 트렌드를 바꾼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



18 Global Challenge

중국 청도에서 열린
청대인의
값진 땀방울들



20 Local Together

대동(大同)의 현장,
우암골
경로대잔치



**충북지역
문화·체육 트렌드를 바꿔갈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의
탄생**



8월이면 청주대학교 캠퍼스에 새로운 풍경 하나가 더해진다. 예술대학 신관 동북쪽에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이 드디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캠퍼스에서 바라보면 미래에서 온 거대한 우주전함이 내려앉은 듯 하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바다 위에 대형 크루즈 한 척이 떠 있는 듯 하다. 단아하게 빛은 도자기의 부드러움마저 느껴지는 이 체육관은 앞으로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청대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창출되는 신세계를 선물하게 될 것이다.

**충북지역 최대 규모의
신개념
문화체육관**

새롭게 선보이는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이하 체육관)은 일반적인 체육관과 달리 스포츠 문화 타운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대형 무대도 갖춘 체육관 주변에는 항후 수영장과 축구전용구장, 캠퍼스광장 등이 함께 조성되어 문화체육 활동과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공원으로 자리 잡게 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8년 체육관 신축계획 확정 후 2009년 1월 국내 굴지의 5개 설계회사(희림, 간삼, 공간, 삼우, Pos-Ac)의 작품을 심사했고,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확정되었다. 2010년 9월 공사안 확정 후 쌍용건설(주)이 시공업체로,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시공감리업체로 선정되어 2011년 1월 체육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체육관은 체육 행사와 학내 행사, 지역 문화 행사 등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우리대학에 더 역동적인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청주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도시에서의 접근성도 좋고, LH공사에서 조성중인 울량 택지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대학이 충북지역 대학 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충북지역의 체육교육에 진일보된 토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추가로 들어서게 될 수영장과 테니스장, 축구전용구장 등의 위치와 시설규모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학생, 선수, 청주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체육단지

체육관은 우암산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중심에 주위 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는 모습으로 들어섰다. 우암산이 가진 산세 흐름의 종착지로서 황소의 기상과 우직함이 체육관의 조형요소에 녹아들었다. 전체적으로 학생과 선수, 청주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세 개의 큰 영역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인의 동선(1층)과 학생들의 동선(2층)을 분리해 교육활동의 방해요인을 최소화한 점도 이채롭다.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전용구장, 진입광장, 캠퍼스광장이 조성되어 입체적인 공간을 연출하게 된다. 또한 주경기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무대는 전문 공연시설 수준의 무대장치와 음향장비,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어 지금까지 충북에서 불가능했던 초대형 공연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입학식과 졸업식, 주민행사, 패션쇼, 강연회 등의 각종 문화행사와 대형박람회 개최가 가능하여 앞으로 충북지역 관람객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는 데 큰 기능을 할 전망이다.



5천4백여 관람석에서 가까이 즐기는 다양한 경기

체육관 내부는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국제규격의 주경기장, 체육수업과 종목별 연습이 이루어지는 보조 체육관과 강의 실습공간 그리고 헬스장, 조깅트랙 등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등이다. 공간마다 적절히 분리 배치되어 있고, 필요할 때에는 개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농구, 배구, 핸드볼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구기종목을 소화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서 최상의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제공한다.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최고급 원목바닥재를 사용했다. 경기장 주변으로 관람석을 집중 배치했으며, 좌석간 간격이 충분해 경기 관람 시 넓은 시야를 확보해준다.

- 1층 | 대체육관, 로비, 유도 및 태권도장, 헬스장, 행정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매점 등
- 2층 | 대체육관 관람석, 보조체육관 등
- 3층 | 대체육관 관람석, 공조실, 조경실, 조깅트랙 등
- 좌석수 | 총 4,508석(플로어 접이식 의자 배치 시 약 850석이 더해져 총 5,358석)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녹색 저탄소 건축물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 지향적인 건축물의 조건을 두루 갖추어 시공했다. 또한 우리대학의 많은 건축물에 적용된 축열식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한다. 빗물을 저장탱크에 따로 모아 번기나 걸레싱크 등 허드렛물을 사용하는 곳에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건축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㉔

Global Challenge



1 한국무용팀



2 벽화팀



3 한국어교육팀



4 태권도팀



5 대중문화교육팀

중국 청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열린 청대인의 값진 땀방울들

2013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 후기

어디를 가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여름방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간이다. 여기, 국제적 안목과 봉사의 가치를 키우는 값진 시간을 보내고 온 이들이 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7박 8일에 걸쳐 중국 산둥성 청도 지역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우리대학 해외봉사단은 봉사내용과 역할에 따라 5개 팀으로 나뉘어 팀 별로 잊지 못할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 그들이 직접 전하는 청도에서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어본다.

1
소고춤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다, 한국무용팀
이윤형 공연예술학과 10학번

기대와 설렘, 걱정이 교차되는 마음으로 청도농업대학의 분교인 해도학원으로 향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하던 날, 해도학원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열정을 갖고 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어쩌나 걱정했는데,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고, 짧은 단어들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제일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의상이었다. 한국무용 의상은 여러 겹이라 무더운 날씨에 의상을 입어야 할 중국 친구들이 걱정스러웠다. 아나나 다름까,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땀을 흘리는 모습에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끝까지 열심히 임한 중국 친구들 덕분에 너무나 뿌듯했다. 공연이 끝난 후, 무용팀 캡틴이었던 중국인 친구가 내게 포옹을 하면서 서툰 우리말로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울먹이는 모습에 마음이 찡해오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2
뜨거운 콘크리트 벽에 우정을 새기다, 벽화팀
이영식 만화애니메이션학과 09학번

후배와 함께 이번 해외봉사단의 벽화 담당으로 중국 청도에 다녀왔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후배와는 달리, 나는 출발 전부터 걱정이 많았다. 벽화를 그릴 장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태였고, 도안에 대해서도 현지 관계자 분들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업 시간은 넉넉잡아 6일. 그 중 하루는 새 도안을 틀에 맞추느라 팀원들과 중국인 친구들 모두 정신 없이 열중했다. 매일매일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가는 그림을 보면서 후배 재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 같은 콘크리트 벽 앞에서 지쳐 늘어지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의 붓이 완성해가는 벽화를 지켜보는 일은 굉장한 희열을 선사했다. 드디어 완성된 벽화를 뒤로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우리들. 중국 친구들과 함께 뜨거운 콘크리트 위에서 나눠먹었던 수박도, 서로를 응원하며 씹어 작업에 열심이던 그 순간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3
마음의 문을 열고 즐겁게 소통하다, 한국어교육팀
윤이나 중어중문학과 10학번

한국어교육팀은 각 팀별 교육에 있어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반적인 통역과 공연무대의 사회를 담당했다. 첫째 날, 통역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중국 친구들은 답답해했고, 의견이 잘못 전달되는 일이 생겼다. 점점 통역하는 일에 지쳐갈 때쯤 중국 친구들과의 교감에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중국 친구들도 편하게 다가왔다. 대화 또한 훨씬 수월해졌고, 이제 더 이상 통역이 버겁지 않았다. 공연 당일은 더욱 잊을 수 없다.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중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있을까, 사회를 보는 내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7일 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청주대학교와 한국의 문화를 동시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뻛고, 국적이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언어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4
따뜻한 배려와 교감의 발자국을 경험하다, 태권도팀
홍정연 영어영문학과 10학번

작년에 중국 흑룡강성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봉사활동을 가게 된 나는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겠다고 다짐하며 청도농업대학으로 향했다. 도착 첫날, 작은 규모와 허름한 시설에 조금 실망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태권도 배우기를 희망하는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청주대를 알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연습에 임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 학생들은 너무나 열심히 따라주었고, 소규모 집단인지만 내 친해졌다. 학생들의 때 묻지 않은 순박한 모습도 마음에 들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신적인 교감은 언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5일간의 땀과 노력으로 마무리한 공연은 많은 박수 갈채 끝에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일주일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던 학교를 바라보던 내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에게 받은 과분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5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다, 대중문화교육팀
김혜진 호텔경영학과 10학번

대중문화교육팀은 한국의 K-pop을 중국 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서부터 불편한 점이 많았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를 알려주기에 급급했지만 차차 교육 중에 친목 도모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봉사활동이긴 했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일이었기에 배우는 입장인 중국 학생들은 우리의 방식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먼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우리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었다. 하루하루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에 대한 선입견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

Local Together

봄날의 우암골에서 대동(大同)의 참 의미를 되새기다



제10회 우암골 경로대잔치 현장 스케치

그것은 대학축제의 전혀 다른 형태였다. 봄이라 하기엔 제법 무더운 아침, 느린 걸음으로 대학문화관 언덕길을 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우리대학 대동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10회 우암골 경로대잔치'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루었다. 내덕동 어르신들과 함께 어우러진 이러한 축제문화는 이제, 지역과의 화합과 상생을 꿈꾸는 청주대학교의 오랜 전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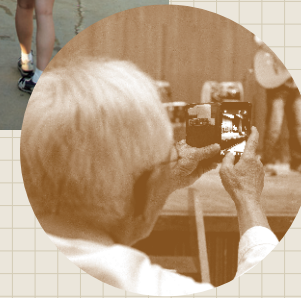


충청북도 지정 예술단 '씨알누리'의 국악 공연



마술과 국악,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봄날의 캠퍼스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대학문화관 2층에 위치한 문화극장은 빈자리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당초 300여 명 정도를 예상했던 총학생회 측도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급히 보조의자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늦게 도착한 어르신들의 부족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20여 명이 본인들의 자리를 양보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드디어 극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본격적인 축하공연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무대를 장식한 이는 대학원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마술사 강국두 동문이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술에 어르신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마술 공연에 이어 진행된 충청북도 지정 예술단 '씨알누리' 단원들의 국악 공연은 가장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방방곡곡 찾아가서 벌이는 놀이판, 판놀음 공감'이라는 주제와 걸맞게 단원들은 무대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었다. "문을 여시오!"라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상모돌리기, 우리민족의 한과 정신을 담고 있는 아리랑 가락에 대금과 징, 장구, 북, 키보드, 일렉트릭 기타를 접목시켜 신명 나는 퓨전 아리랑으로 승화시킨 연주를 선보인 씨알누리 단원들에게 관객들은 아낌 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이구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어쿠스틱 기타와 장구가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인 무대는 낯설지만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연주했다.



어르신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르며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윤배 총장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대학축제의 즐거움

우암골 경로대잔치가 열렸던 날, 유난히 더운 날씨 탓에 문화극장은 공연 내내 에어컨이 풀 가동됐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탓인지 쉽게 실내온도가 떨어지지 않자 김윤배 총장이 직접 나서서 냉방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몇몇 어르신들과 정중히 악수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등 지역주민들을 꼼꼼히 챙겼다. 한편, 총학생회 학생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미리 준비한 부채를 나눠주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캠퍼스를 찾은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을 부축해 자리로 안내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으로 공연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마다하지 않았다. 손주 같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은 축하공연이 클라이맥스에 치닫자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대동제에 앞서 열렸던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봉사'에 참여한 150여 명의 노인들 가운데, 공개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10명의 최고 득점자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고 별점을 획득한 이상득 어르신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는 김윤배 총장과 권성태 총학생회장이 직접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다. 우암골 경로대잔치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마무리됐다. 문화극장을 나선 어르신들은 학생문화관 1층 학생식당으로 이동해 학교 측이 미리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받았다. 육개장과 떡, 고기, 잡채 등 잔치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는 어르신들 곁에서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안내하는 일에 김윤배 총장과 교무위원들도 동참하는 등 대학본부와 학생들이 모두 하나되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대동제의 풍경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크게 하나됨을 뜻하는 '대동'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대학을 넘어 지역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한 우암 대동한마당의 결정적 장면이었다. ㉠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봉사 이야기

TIP

지난 5월 어버이날은 우리대학 영화학과 재학생들에게 매우 인상 깊게 남아있을 것이다.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뜻 깊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250여 명 어르신들의 밝고 환한 표정을 담은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봉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언제나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과 행복을 공유하는 청대인이기에 가능한 어버이날 행사였다.

5월 8일~9일, 우암동 주민센터

임시 스튜디오에서 행복한 영정사진을 촬영하다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우암동 주민센터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우리대학 영화학과 학생들과 학생회 임원 15명이 우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2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촬영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임시 스튜디오로 꾸며진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첫 날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 수만 120여 명. 촬영이 진행될 때마다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10여 분간 어르신들의 얼굴근육 이완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의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이번 봉사활동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학생들과 함께한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는 "장례식장에서 보는 영정사진들이 너무 무겁고 어두워 보일 때가 많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밝고 환한 표정의 영정사진 보급이 우리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마침 학생들과 어버이날을 맞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다 거들게 됐다.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더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며 이번 행사를 진행한 제자들을 격려했다.



5월 23일, 학생문화관 1층 로비

영정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시하고 콘테스트를 열다

이틀 간에 걸쳐 촬영된 영정사진들은 5월 23일 열린 우암골 경로대잔치의 일환으로 학생문화관 1층 로비에 전시되었다. 청주대 재학생들이 직접 별점을 주어 가장 자연스럽고 환한 표정을 지은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문화관 로비에 들어선 학생들에게도 이번 전시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모두들 우암동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미소에 반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앞에 멈춰서고, 또 별점을 주는 모습을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별점을 받은 작품은 이상득 어르신 사진이었다. 38명의 지지를 얻은 이상득 어르신을 비롯해 총 10명의 수상자들에게는 모두 전통시장 상품권이 주어졌다. 뜻밖의 수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이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봉사의 취지를 잘 살려주고 있었다. 모든 공식일정이 끝난 후 총학생회 자원봉사자들은 전시를 마친 영정사진 액자를 가방에 담아 어르신들께 선물했다.



WOW People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24
청인보 제1장

흙으로 삶을 빛는
김기중 동문



28
청인보 제2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끄는
이상렬 교수



30
청인보 제3장

열정과 독심의 금융인,
윤승욱 동문



32
청인보 제4장

잔잔한 울림으로 세상을 바꾸는
김영상 동문



34
청인보 제5장

무대 위 진짜 배우를 향한 꿈,
한세봄 학생



도예명인,

흙으로 삶을 빛다



도예명인, 청원예총 회장
김기중 동문 공예디자인학과 83학번

“웃깃 여머라. 광주 이천 불구덩이 가마 속 그릇 하나 익어간다.” 고은 시인의 이 시구만큼 도예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또 있을까. 지난 6월 한국예술문화명인 ‘도예부문 명인’으로 선정된 김기중 동문은 청원군 내수읍 ‘토지도예’ 공방에서 삶을 빛고 있다. 그릇 빛는 일이 사람살이와 같다고 믿는 그의 손끝에서, 지난 27년간 흙은 아름다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네 삶을 빛나게 해주고 있다.





27년 도예가의 길에서 얻은
'도예명인'의 영예

손수 빚은 접시에 수박을 정갈히 담아 대접하는 손길에 마음이 활짝 열린다. 그릇 만드는 사람들은 음식 만들기도 좋아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김기중 동문. 그는 27년간 물레와 인생을 함께해온 현대 도예가다. 강아지가 꾸벅 졸고, 닭과 새가 노니는 여유로운 공방 풍경과 달리 그의 하루는 의외로 촌촌하게 돌아간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유약을 개발하고, 제작 기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 도예를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 여기는 그이기에 이른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을 줄 세워 놓는 것은 나태해지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이자 오랜 세월 물레에 뺨 습관이다. 김기중 동문은 물레를 찰 때를 빼놓고는 꼭 장갑을 끼고 일할 정도로 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이런 정성이 도예가의 삶을 풍요롭게 가꿔온 비결 아니었을까? 그의 공방에 전시된 그릇 수만큼이나 다양한 이력이 외길을 걸어온 장인의 뚝심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개인전(8회), 초대전(42회), 단체전(184회)을 통해 매회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였고, 1994년부터는 우송공업대, 청주대, 상명대, 공군사관학교, 여주대, 영동대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1999년부터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워크숍 작가를 맡고 있으며, 2007년에는 '충북의 꿈 대표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작년부터 청원예총 회장의 역할도 하나 더 없어져 공방과 예총을 오가는 가운데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에서 도예명인으로 선정되었고, 시사투데이가 주최한 2013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에서 문화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흙에 이끌린 삶,
가마와 함께 생명을 빛다

장인에게 흙을 만지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 "흙처럼 정직하고 순박하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만지는 대로 모양이 나오고, 한없이 부드럽기만 하던 흙이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물질로 변하잖아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그릇도 건조과정에서, 유약을 바를 때, 또 가마 속에서 흐트러질 수 있기에 그릇을 빚는 온 과정이 집중과 긴장의 연속이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과 손길이 닿지 않는 가마 속에서 변화하는 흙의 모습은 그에게 늘 희열이다. 포기하려 했던 술한 고비마다 가마가 완성해준 오묘한 빛에 반복하기를 몇 천, 몇 만 번. 그렇게 도예가의 손은 흙을 놓을 수 없었다. 김기중 동문이 흙에 이끌린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화가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에 젖어 그리기에 빠져있던 어느 날, 실습실에서 흙을 만지던 선배들의 모습은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왔다.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해두었다가 아무도 없는 실습실에서 흙을 만나게 됐고, 이내 친해졌다. 처음 만들어 본 넓은 수반이 S자로 갈라졌을 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 그 원인을 찾아내고 싶었다. 일정한 두께를 가져야 물체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몇 번의 실패를 더 맛본 후였다. 시간과 노력이 해결해주는 '감'을 알 리가 없었으니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 겪은 일은 그가 그릇을 빚으며 다져온 삶의 철학에 단초가 되었다. "저는 늘 그릇 빚는 것을 사람살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만드는 과정은 남자의 업 같고, 품는 가마는 여자의 업 같지요. 가마 안에서 산고의 과정을 지나 흙이 제 생명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그릇을 깨버리는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성에 안 차게 나온 그릇은 파편으로 깨어져 흙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화분으로, 혹은 어느 가게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시 태어나곤 했다. 잘난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며 모든 작품엔 의미가 있고 나름의 쓰임과 역할이 있다고 믿는 그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예술을 위한 길, 소통

이런 소신과 마음 씀씀이 때문인지 그의 주변엔 늘 사람이 많다. 학생 회장부터 학과 동문회장, 한국공예가협회 충북지부장을 거쳐 현재 청원예총 회장까지 30년 가까이 여러 단체의 장을 맡아온 것도 그릇을 빚듯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 때문일 것이다. "청원예총을 이끌게 되면서 선 굵은 프로젝트를 기획했었는데,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앞두고 있어 지금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곽지역의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만은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혼자만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이 청원군민의 일상을 앞으로 도 변함없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채워줄 것 같다. '혼자만 즐기지 않는 예술'은 그의 개인전에서도 유감없이 발현된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보이며 관객과 즐거운 소통을 꾀했던 김기중 동문이 8월에는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백자의 반란>이라는 주제로 기획초대전을 가진다. 흔히 여성에 비유되는 백자에 현대여성의 활약상을 투영하고 싶다는 백자를 통해 우리 시대 여성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물레질을 마감하는 날까지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서든 흙대받지 않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그에게 이번 여름은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 같다. ㉞

차세대반도체융합기술연구소장
이상렬 교수 반도체공학과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끄는

몰입의 힘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 '최첨단'을 겨루는 디스플레이. 이상렬 교수는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될 빠르고 안정성 있는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에서 후학을 길러내는 일이다. 세계 디스플레이 분야를 이끄는 놀라운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대학 반도체공학과 연구실을 살찌우고 있다.

“작년 초부터 여의도 펀드매니저들에게 산화물 반도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이나 LG가 사활을 건 분야가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데, 여기에서 키 이슈가 바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산화물 반도체거든요. 증권가에서 이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면 투자가 힘들어지죠.”

속사포 같은 말씀씨로 단박에 설명을 끝내는 이상렬 교수는 속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앞서 가는 전사다. 그는 현재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최고 관심 분야이자 경쟁 분야가 되어버린 '산화물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권위자로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이끌고 있다. 최근의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사실적인 생생함을 전해주어야 하고, 빨라야 한다. 그만큼 화면을 뜨게 하는 반도체 소자의 속도가 빨라져야 하는데, 기존의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 박막은 기본적으로 그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박막화 했을 때 위아래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원자가 비뚤배뚤 배열되어 비정질화 되기 때문이다. 이상렬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는 처음부터 비정질 물질인데도 전자의 이동속도가 상당히 빠른 산화물 반도체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2005년에 이미 삼성과 LG에 산화물 반도체를 소개했고, 2007년부터는 이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 출시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 이상렬 교수는 수많은 국제학회의 초청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해왔고, 작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럽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 동안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12년에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내년 4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열리는 재료학회(MRS)에서 초청 발표가, 6월에는 이탈리아 투스카니에서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가 실리콘에서 산화물 반도체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 속도 또한 정말 빠르다는 것이죠. 매년 봄과 가을, 국제학회에 갈 때마다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선도 연구자의 입장에서 후발주자에게 밀릴 수는 없으니까요.”

치열한 분야에서 계속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은 온 몸이 뚝뚝서서 긴장감마저 잊어버리게 할 정도의 강렬한 짜릿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렬 교수는 이 짜릿함을 청주대학교 제자들과 함께 맞보고 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위탁 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학생들이 삼성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과제미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뉴욕주립대에서 석·박사를 4년 만에 마치게 한 그의 '몰입과 집중'의 힘도, 25년 동안 거르지 않고 매주 진행하는 '주간 세미나'의 성실함도 모두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에너지다.

“연구 결과가 '실시간'이라 표현해도 될 만큼 산업현장에 곧바로 적용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니, 꽤 운이 좋은 연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반도체 재료를 계속 개발할 겁니다. 이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그는 곧 또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결과를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최고의 사이언티스트(Scientist)가 오랜 시간 보여준 노력과 즐거운 몰입. 그를 믿게 하는 이유다. ①



독심의 금융인, 별이 되다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부행장
윤승욱 동문 경영학과 78학번

한계를 극복하며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자의 얼굴엔 자신에 찬 기운이 충만하다. 얼마 전 신한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된 윤승욱 동문의 얼굴이 그러하다. 대학교 2학년 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 이후 두 번째로 학교에 내걸린 축하 플래카드가 송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기쁘다는 윤승욱 동문. 자신의 '업'에 대한 애정과 독심으로 큰 명예를 길어 올렸고,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 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신한은행 본점 6층. 파릇한 잔디가 멋스레 펼쳐진 승례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방이었다. 지난 5월 27일 신한금융지주 인사에서 부행장으로 선임된 윤승욱 동문은 이곳에서 경영지원그룹 400여 명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철저히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이번 인사에서 윤승욱 동문은 충청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임원으로 승진했다. 신한금융지주 전체 직원 16,000여 명 가운데 점포장이 1,300명, 본부장이 40명, 임원은 12명이다. 흔히 '바늘구멍'에 비유되는 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우뚝 선 것이다.

“강남금융본부장을 4년 동안 해오면서 맞은 큰 기회입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잘 짜맞춰 가야겠지요.”



윤승욱 동문이 이끄는 경영지원그룹은 신한금융지주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전국 900여 지점과 해외 지점을 지휘하고 있다. 인사, 연수, 교육, 노사, 총무, 직원만족 등 전체 살림살이를 살피는 곳이어서 모든 현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서 가야 하는 매서운 눈도 필요하다. 1985년에 입행해 30여 년을 근속하며 점포개발부장, 총무부장, 지점장, 본부장을 거쳐 부행장까지 한 계단 두 계단 밟아온 이의 내공은 과연 무엇일까.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직의 방향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유되고, 또 제가 솔선수범하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요. 상하관계나 직급관계가 아니라 형, 아우, 가족 같은 관계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혼자 하면 아무리 뛰어도 성과가 잘 나오지 않지만,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일을 추진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그였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업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 그의 마음가짐은 부하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지점장으로 있던 2002년과 충북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전국업적평가에서 당당히 1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윤승욱 동문의 이러한 철학 덕분이다. 조흥은행을 인수하던 시절에는 1년 반 동안 점포개발부장으로 전국을 누비며 190여 개 은행을 신설하거나 이전, 통합, 폐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회고하는 그이지만, 예의 그 추진력을 밀친 삼아 도전했던 뜨거운 날들이기에 그저 고마운 경험이다.

“내가 그 일에 일인자, 주인이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주대학교가 서울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핸디캡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지 않을까요? 핸디캡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로 키우는 방법 말입니다.”

후배들로부터 존경 받고, 실력을 인정받은 한 금융인의 인생이 전하는 귀한 경험의 말이었다. ‘한 발짝 더, 한 시간 더’ 힘주어 살아가라고. 그것이 내 앞에 놓인 높은 장벽을 허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이다. ⑤



잔잔한 울림으로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다

헤럴드경제 기자,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저자
김영상 동문 신문방송학과 90학번

스펙의 시대는 지나고 스토리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누구인지 보다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 더 궁금하고 중요해지는 시대다.
김영상 동문은 얼마 전, 저마다의 자리에서
성공신화를 일군 고졸자 17명의 이야기
한 권의 책(한국의 아웃라이어들)으로
엮였다. 대기업과 정치 분야 기자로 뛰며
발견한 보석 같은 이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건져 올린 것이다.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김영상 저 / 북오션 펴냄

이 책은 고졸 출신으로 역경을 극복하며 성공신화를 써 내려온 1세대 CEO들, 의도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편견 없는 실력 사회를 일군 해외사례와 배경 등에 대해 저자 김영상 동문이 느낀 짧은 단상들을 함께 담았다.

“아주 오래 전부터 기획했던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학벌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요. 공고한 성벽이에요. 현장에서 많이 느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대학만이 유일한 길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기자로 근무하며 20년 가까이 사회 구석구석을 탐사해온 김영상 동문이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인 학벌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다. 지난 3월 출간한 <한국의 아웃라이어들>에는 고졸 출신으로 성공한 17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로서, 잘 팔릴 만한 책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출간 이후 출판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으며 줄곧 화제가 되어 왔다. 최근엔 책 내용과 관련해 인터뷰와 강의 요청도 늘고 있다.

“요즘 메일이 가끔 옵니다. 옛그제는 21세 청년이 보내왔어요. 제대하고 고졸로 무엇을 하며 살지 막막했던 터에 서점에서 고졸신화라는 말에 이끌려 책을 봤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멘토가 되어달라고 하더군요.”

모두가 ‘갑’으로 살고 싶어하고, ‘갑’으로 사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고졸은 주홍글씨이자 실패와도 같은 말로 여겨지기 일쑤다.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또 대졸자는 해외 유학파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사는 사회구조가 아닌가. 하지만 김영상 동문은 이 책을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 역시 이력서 학력란의 맨 첫 줄에 고졸로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대학을 선택했기에 더 간절했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 김규환 전 두산인프라코어 명장, 최범석 패션디자이너, 박효남 서울힐튼호텔 셰프... 이들과 함께 고졸이라는 한계와 굴레를 극복하고 저마다의 일에서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며 당당한 삶을 사는 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말이다. 김영상 동문에게 이러한 생각과 고민의 실마리가 되어준 귀한 자양분이 꽤 많다. 편집부, 국제부, 경제부, 부동산부, 문화부, 정치부, 산업부 등 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사회를 종과 횡으로 나누고 또 묶어보는 기자만의 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대기업과 재계 4단체의 출입기자로 뛰었고, MB정부 전반기 2년 동안에는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기자로 살아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사람마다 기질과 역량이 다른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잘 보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얘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것이 오랜 시간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터득하게 된 생각이자 신념입니다.”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는 강한 집념으로 기사를 써오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잔잔한 울림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김영상 동문. 적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을 그저 충실히 따르는 기자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자이고 싶단다. 타고난 그의 기질과 능력대로라면, 울림을 주는 기자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터이다. ④



이제 시작하는, 무대 위 진짜 배우

제21회 젊은연극제 참가작 <죽음 혹은 아님> 연출
한새봄 학생 연극학과 10학번

무대 위에는 몬드리안의 작품 '컴포지션(Composition)'을 연상케 하는 벽 세트에 일곱 빔갓 불빛이 은은하다. 연극이 시작되자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관객을 빨아들인다. 7개의 에피소드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이야기에서 그들은 죽음을 면한다. 에피소드를 넘나들며 연결되는 관계와 관심, 소통에 의해서 말이다. 시종 일관 숨죽이며 침을 꿀꺽 삼키게도 했다. 한바탕 웃음을 쏟아내게도 했다. 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연극은 끝났고, 관객들은 한동안 자리에 머물렀다.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연극학과 4학년들의 힘으로 완성한 연극 <죽음 혹은 아님>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7월 7일, 비 내리는 대학로 정보소극장 대표소에는 <죽음 혹은 아님>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올해로 21번째 열린 '젊은연극제'에는 전국 52개 대학이 참가했고, 매년 그렇듯 올해도 청주대학교 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여전했다. 작품 선정에서부터 기획과 연출, 무대, 음향 등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완성해내는 젊은연극제에 청주대학교 팀은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공연되지 않았던 <죽음 혹은 아님>을 무대 위에 올렸고, 그 중심에는 연출을 담당할 한새봄 학생이 있었다.

지난 7월 첫째 주 일요일, 대학로 정보소극장에서 청주대학교 연극학과와 전통과 저력이 그대로 발휘되었다. 배우들은 뜨겁게 빛났고, 관객은 유쾌한 감동을 맛보았다. 스페인 출신 극작가 세르지 벨벨의 작품 <죽음 혹은 아님>을 연출한 한새봄 학생은 이제 막 '인생 1막'을 살아가는 스물 셋 연기자 지망생답게 당찬 무대를 완성했다. 무대와 관객, 연극에서 삶의 에너지를 듬뿍 받고 싶다는 그녀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는 텍스트의 힘을 믿어요.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반전에 의해 죽었던 사람이 모두 살아나는 아이디어에 끌렸거든요. 연기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작품이었고, 처음으로 연출을 해보겠다고 손들었죠. 배우들은 관객의 에너지를 받고 연기하잖아요. 오늘 그 현장 속에 있으니, 무대 위로 뛰어가 함께하고 싶었어요.”

한새봄 학생에게 이번 첫 연출은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잘해낼 수 있을지 주춤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기로 했다. 작품을 선정하고 캐스팅할 때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을 고민할 때에도 교수님과 동기, 선배와 후배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자신과 단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3월부터 시작된 공연 준비, 그리고 연습에 연습, 더블캐스팅으로 연기한 28명의 배우와 21명의 스태프를 이끌며 한새봄 학생은 긴 호흡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조정하는 연출가의 역할은 역시나 쉬운 것이 아니었다. 매일 풀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연출가는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는 그녀.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선택은 어려운 것이지만 잘만 하면 조화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선택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연출로서 배우들에게 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으로 연출의 희열을 맛보게 해준 작품인 만큼 모든 장면이 그녀에겐 배움의 흔적이다. 방학 때마다 대학로를 수시로 드나들며 수십 편의 연극을 보고, 밀양연극제 스태프로 뛰면서 대선배들의 연기를 온몸으로 목도한 것도 배우고 또 배우고자 했던 그녀의 열정 때문이었다.

“연기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깊이 사랑해야 끝까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지망생으로서 연기를 위한 연기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아무진 꿈을 말하는 젊은 연극가는 이번 여름 다시 한번 제대로 연기공부에 빠질 계획이다. 발성부터 몸의 움직임, 감정의 흐름까지 진지하게 되짚어볼 거란다. 진짜 배우로 태어나기 위해 자신의 엔진을 뜨겁게 데우는 그녀. 어서 오라, '배우 한새봄'의 무대!



날개가 없어도
 낙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젊음에게

높고 곧은 저 절벽 위에서
 거침 없이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무모하다 탓하지 말라.
 날개도 없이 수직 하강하는
 무형무취의 물줄기들은
 누구보다 강인한 내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니.

내 안에 고여있는 무수한 생각들을
 세상 밖으로 쏟아낼 줄 아는 젊음만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다.
 곧게 떨어지는 폭포수의 결단력으로
 뜨거운 여름을 인내하라.
 새로이 시작될 내일을 준비하라.

Issue & News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멈추지 않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환경 그리고 사람에 대한
 청대소식을 전합니다.



38 Focus On

개교 66주년 기념식
 개최 외

42 News Brief

영화학과,
 한중합작 단편영화
 제작 외

45 Special Lecture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46 People News

정상수 교수,
 교양기초교육 우수콘텐츠
 선정 외



1

개교 66주년 기념식 개최

청주대학교는 지난 6월 5일, 본관 청식홀에서 개교 6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헌정보학과 윤정옥 교수와 반도체공학과 오데레사 교수가 청석학술상을 수상, 각각 700만 원씩을 부상으로 받았다. 청석학술상은 설립자인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형제의 창학정신을 선양하고, 교수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제93회 전국체전과 2013년 제1회 아시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조슬기(체육교육과 2학년) 학생과,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은 민두홍(만화애니메이션학과 4학년) 학생에게는 모범학생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영국 요크대 박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황민철(사회복지학과 2002년 졸업) 동문과 영국 런던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동주(신문방송학과 2012년 졸업) 동문에게는 해외유학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다음은 개교 66주년 수상자 명단이다.

- ▲스승의 날 표창 △김영숙(패션디자인학과) △정연호(컴퓨터정보공학과) △최세영(응용화학) ▲유공직원표창 △김태식(비서실) △이태경(시설운영팀) ▲30주년 근속표창 △김동환(경영학과) △하대용(경영학과) △김병태(경영학과) △조창희(사회학과) △심상렬(환경조경학과) △임동만(수학교육과) △김태훈(음악교육과) △김기중(사무처) △민성기(시설운영팀) △김재선(시설운영팀) ▲20주년 근속표창 △이명선(유전공학과) △신희주(음악교육과) △김태식(비서실) △이민희(시설운영팀) △박병학(총무팀) △장성식(평가지원팀) △김연조(학생복지팀) △음병화(시설운영팀)

2

우암 대동한마당 개최

올해로 개교 66주년을 맞은 청주대학교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재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우암 대동한마당을 개최했다. 첫째 날인 22일 오후, 문화광장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의 패션쇼가 진행되었으며, 오후 9시에는 예술대학 연극학과 학생들의 퍼포먼스와 동아리 공연으로 구성된 예술제가 열려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인 23일 오전에는 내덕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0여 명을 초청하여 '우암골 경로대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학문화관 문화극장에서 충청북도 지정 예술단인 씨알누리의 공연과 우리대학 대학원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미술사 강국두 씨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고,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저녁 7시부터 문화광장에서는 재학생들의 노래 솜씨를 뽐내는 대학가요제와 연예인 축하공연이 이어져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가수 울랄라세션, 더원, 스위트 등의 초대가수들이 열띤 무대를 선보였고, 화려한 불꽃쇼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한편, 청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축제기간 중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각 단위학생회 대표로부터 맥주만 마시기로 약속하는 '맥주 서약'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주점 수를 약 40% 가량 감소시키는 등 진정한 대학 축제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Focus On



3

이성한 경찰청장,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와 간담회

지난 5월 16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와 함께 청주 안덕빌 일대를 합동순찰하고,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가지는 등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오후 3시 반경 안덕빌 내덕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도착한 이성한 청장은 김윤배 총장, 청주대 외국인유학생 치안서포터즈들과 함께 우리대학 평생교육원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중국식품 전문점, 중국식당 등에 들러 순찰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우리대학 관계자와 유학생, 경찰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국인유학생 치안서포터즈 대표인 주원주 학생이 "관공서나 신고 전화 등을 할 때 외국어 통역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이성한 청장은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다. 112의 경우 24시간 통역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치안서포터즈들이 주변의 유학생 친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는 우리대학에서 추천한 30명의 유학생을 청주시 상당경찰서에서 위촉하여 지난 4월 16일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유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다문화 봉사활동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4

성년의 날 기념 헌혈 및 전통 성년례 개최

청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대규모 헌혈 행사를 펼쳤다. 이는 성년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뜻 깊은 성년의례를 통해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2009년부터 5년째 이어온 행사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대학 중앙도서관 광장에 헌혈버스 2대를 준비했는데, 약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총학생회는 이날 모은 학생들의 헌혈증을 청주대 학생회와 협약을 맺은 어린이재단에 지난 6월 2일 기증하고, 후원협약을 맺은 어린이 61명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작년까지는 학생들의 헌혈증을 청주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해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대학문화관(학생회관) 문화극장에서 전통 성년의식이 열렸다. 청주향교의 집전으로 열린 전통 성년례는 문헌정보학과 송재국 교수와 한국어교육센터 김순일 강사의 주례로 삼가례(三加禮) 축사, 가관례(加冠禮), 초례(醮禮), 자관자례(字冠者禮), 성년선언(成年宣言), 수훈례(垂訓禮)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관례는 성인이 된다는 뜻으로, 남자에게는 관(冠)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주는 것을 말한다. 초례는 술 마시는 법도와 교훈을 일깨워 주는 의례이며, 자관자례는 성년자에게 자(字)를 지어주고 뜻을 설명해 주는 의식이다. 수훈례는 평생토록 교훈으로 삼을 만한 선현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것이다. 이날 전통성년례에는 올해 성년을 맞은 유학생 한진밍(韓金銘, 중국) 학생과 가부노바 알리나(Gabunova Alina, 러시아) 학생이 참여하여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News Brief

김윤배 총장, 코스타리카·페루 방문



김윤배 총장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 협력에 나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7월 24일까지 코스타리카에 머물면서 크루즈 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태양광에너지와 바이오 메디컬 분야 교류협력 시 코스타리카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또한 김 총장은 코스타리카대학(UCR), 코스타리카 기술대학(TEC), 라틴아메리카기술대학(ULACIT), 코스타리카 라틴대학(LATINA), 아메리칸대학(UAM)의 총장들과도 연달아 만나 태양광, 바이오 메디컬, 국제무역 등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서 대학간 교류 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코스타리카 일정을 마친 김윤배 총장은 페루로 이동해, 25일 페루의 의학, 보건의로 분야 명문대학인 카에타노 헤레디아 대학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양교는 보건 의료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로의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 및 학생의 교류에 관한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같은 날 교육부를 방문한 김 총장은 갈도 교육부 차관, 유학 프로그램 디렉터 등 교육부 핵심 관계자들과도 만나 청주대와 페루 대학 사이의 교류에 있어 페루 교육부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페루의 국가장학 프로그램을 통한 유학생 지원 방안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축공학과, 국토교통부 공모전 특별상 수상



우리대학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지도교수 한천구) 3학기 김경훈, 1학기 이명호, 어량량 학생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제1회 국토교통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한건축학회장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12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최종 결정한 이번 공모전에서 청주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재료시공연구실팀은 재생자원을 재활용하고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저시멘트 콘크리트의 개발과 개량형 에어캡을 이용해 콘크리트의 내구성 높인 장수명 콘크리트 구조물 구축기술을 응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화학과, 한중합작 단편영화 제작



우리대학이 중국 수도사범대학 과덕학원이 개최하는 제2회 국제대학생단편영화대전에 참가한다. 영화학과는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7월 15일부터 6박 7일간 중국 수도사범대학 과덕학원의 교수와 학생 14명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합작 단편영화 제작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월 18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단편영화창작 토론회'에는 한중 양국의 영화학도 50여 명이 참석해 '유교문화 영향권 아래 단편영화의 창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전에는 양국의 단편영화 5편이 상영되었으며, 수도사범대학 과덕학원 선샤오번(沈孝本) 부총장은 모두발표에서 "예술은 단순히 감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 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양교의 협력으로 젊은 영화학도들이 문화를 넘어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후에는 중국과 한국의 학생 40여 명이 '한국의 술 문화'를 다루는 15분 분량의 한중 합작 단편영화 제작을 이어갔다.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는 "국제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소통이다. 이번 행사가 양국의 젊은 영화학도들이 많은 생각과 우정을 나누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학생들, 충북지역 기업도보 대장정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7월 17일부터 3박 4일간 충청북도 내 기업체들을 도보로 탐방하는 'WOW(Walking On Workplaces) 기업도보대장정'에 나섰다. 구직활동에 관심이 많고, 도전정신과 열정이 넘치는 재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장정은 경제학과 동아리인 '돌고래 학생기획단'에서 직접 기획한 행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17일 오전 경성대학 세미나실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청주산업단지과 한국도자기, 수산기계 이엔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방문하였으며, 18일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기린화장품, 메타바이오메드 방문을 마치고 옥산에 위치한 हे능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마지막 19일에는 오창과학단지 내 LG화학, 그린광학, 녹십자, 중소기업청, 충북테크노파크 등을 돌아본 뒤 학교로 돌아와 경성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올취 취업콘서트(대표 박명하)' 참석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청주대-장나라 소속사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6월 20일, 우리대학과 ㈜나라짱닷컴은 미래창조관 2층 회의실에서 문화산업진흥과 영상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우리대학은 영상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료와 영화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나라짱닷컴은 영화제작실습과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나 제작경비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나라짱닷컴에서 제작중인 영화 <플라로이드(감독 주호성)>에도 우리대학 측은 협약에 따라 애니메이션 및 만화의 제작과 촬영지 섭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라로이드>는 한중합작영화로 7월 초 크랭크인하여 청주시 문화산업단지 내 동부창고(구 연초제조창)를 주 세트로 활용, 수암골, 청주공항, 운보의 집 등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촬영지 소개 전문사이트인 '레디고 청주(<http://www.readygocj.com>)'가 징검다리가 되어 이뤄졌다.

외국인 유학생 통합안전교육 실시

지난 6월 4일, 우리대학 본관 청석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대학이 청주 상당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동부소방서와 각각 협의해 강사를 초빙, 통합교육을 실시키로 하면서 성사됐다. 교육내용은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최상갑 팀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상당경찰서 외사과 정태훈, 신광진 외사관이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동부소방서 율량119안전센터 김흥기 센터장이 응급처치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후 사오룡(胡少鏞, 중국) 학생은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소방서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 분들이 와서 설명하니깐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대, 국가장학금 탈락자 구제

우리대학은 올해 1학기 성적기준 미달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학생 21명에게 총 7,100만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구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장애 학생과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우대하여 이번 학기에만 총 729명의 학생에게 3억여 원을 추가 지원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상 직전학기 성적이 2.60(4.5점 만점, 백분위 80점) 미만인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어려운 형편의 학생일수록 학업에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청주대 김경식 학생처장(영화학과 교수)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살렸고, 우리대학 장학제도의 취지도 심부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의 혜택이 두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대-청주보훈지청과 나라사랑 교육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청주보훈지청(지청장 김영준)은 지난 6월 13일, 청주보훈지청 2층 회의실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나라사랑 교육과 교원 연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보급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서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젊은 대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호국보훈정신을 기를 수 있는 나라사랑 교육강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학술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등의 협력이 이어갈 예정이다.



회화학과, 비주얼아트학과로 전면 개편

우리대학 회화학과가 비주얼아트학과로 전면 개편된다. 지난 6월 4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는 기존 회화학과와 교과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순수예술에 기반을 두되 실용학문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나갈 비주얼아트학과로 전면 개편하고, 정원 40명의 제약공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또한 기존의 유전공학과를 바이오메디컬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치위생학과와 의료경영학과를 각 40명 정원으로 10명씩 증원하는 등 충청북도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News Brief

광고홍보학과, 질병관리본부 공모전 2팀 동시 수상



우리대학 광고홍보학과 학생 10명이 질병관리본부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6월 1일 한림대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성인예방접종 대학생 공모전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본선에 진출한 두 팀의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모두 우수상을 받았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 감염 등 성인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하는 성인 건강 증진 정책을 위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19일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이 중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청주대는 참가대학 중 유일하게 본선 1차에 오른 두 팀 모두 본선 최종 심사에 올랐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금 이 순간' 팀(성진영, 김윤기, 김민진, 이돈균, 이보희)과 'Wake up' 팀(한상원, 현진명, 황재희, 황상미)은 김찬석 교수의 'PR기획서 작성' 수업에서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본선에 추천되었다.

청주에덴원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봉사

우리대학 태양광에너지공학과와 태양광트랙 학생들이 지난 5월 30, 31일 양일에 걸쳐 청주에덴원(원장 오장연,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64번지)에 3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해 에덴원 측은 25년간 매월 1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하게 됐다.



이번 봉사를 위해 태양광 관련 학생들은 실험실습 중에 제작한 모듈들을 내놓았으며, 도내 기업인 (주)다쓰테크(대표 금만희)와 (주)위텍(대표 우중호)이 각각 인버터와 접속반을 제공했고, 부강이엔에스(주)(대표 박규식)가 학생들과 함께 설치 시공에 나섰다. 이 같은 봉사는 2010년 11월부터 우리대학에서 수행 중인 태양광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관련 태양광 기업체 등이 후원하고 있다.

청주대, 제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지난 5월 10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87명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선서를 하는 학생 외에도 재학생들과 학부모, 대학과 병원 관계자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서식은 국민의례,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윤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장에서 박애와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하며 밝았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등불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밝힌 촛불로 이어져 온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최선을 다했던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계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예비간호사로 첫 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이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자 의료제도의 개혁가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간호 전문직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행사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본격적인 병원 임상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호사로서의 사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6년 연속 레드닷 본상 수상



왼쪽부터 윤태식, 이강직, 이동규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김동하) 학생들이 2013년 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수상이 확정되어 '6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수상자는 총 3명으로, 윤태식(4학년) 학생의 'L-Burner'는 'L'자 형태로 꺾이는 휴대형 버너 디자인으로 휴대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이미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8회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품이다. 이강직(4학년) 학생의 'Octagon Stretcher'는 환자 이송용 휴대용 들것 디자인으로 8각형의 접이식 구조를 이용, 등에 메거나 끌기에 안정적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작품이며, 이동규(3학년) 학생의 'Slide Wheelchair'는 하반신이 불편한 환자들이 혼자서도 쉽게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자인이다. 수상작들은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 기반의 디자인으로 모두 현실 참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pecial Lecture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3년 5월~6월

5월

5월 29일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

'지식인과 지성인 그리고 청대인'

우리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이 모교에서 2013년 1학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열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29일 청암홀에서 후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인과 지성인 그리고 청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대학생 시절의 나는 강의실로 통학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청대신문사로 출근하는 기자였다"며, "그 당시 나의 삶과 치열하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내 인생, 내 운명을 신문과 함께 하도록 결정지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해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조철호 회장은 청주 출신의 시인이자 언론인으로, 연함통신사에서 기자, 충북취재반장, 충북지국장 등을 역임했고, 1991년 동양일보를 창간했다. 1978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 '달춤'이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고, 충북문인협회장, 충북예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시낭송전문가협회장과 충북예총 회장직을 맡고 있다.

6월

6월 5일

장순홍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에너지와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창조경제론'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장순홍 석좌교수가 청암홀에서 2013년 1학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11번째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장 교수는 지난 6월 5일 청주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창조경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장순홍 교수는 197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하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재직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대외부총장, 교학부총장 등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2006년 6월에는 미국원자력학회 펠로우(Fellow)에 선정됐으며,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 자문위원,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People News

Faculty News 교수소식

1 정상수 교수, 교양기초교육 우수 콘텐츠 선정



광고홍보학과 정상수 교수의 사이버 강좌인 '광고로 배우는 아이디어 발상법'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교양기초교육 우수 콘텐츠 콘테스트에서 우수 콘텐츠로 선정됐다. 이 수업은 정 교수가 충북권역대학 이력지원센터의 업무를 맡고 있는 청주대 교수학습개발실과 함께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강좌다. 사고 교육에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을 주된 콘텐츠로 하였으며,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광고를 통해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서비스인 KOCW(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를 통해 일반인도 정 교수의 강좌를 쉽게 수강할 수 있다.

2 최세영 교수, IBC '세계 100대 과학자' 선정



응용화학학과 최세영 교수가 영국의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의 '2013 세계 100대 과학자 (Top 100 scientists 2013)'에 선정됐다. 최 교수의 이번 등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병원성세균, 곰팡이 등 실내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분해, 제거하는 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시광선 감응형 광촉매의 개발연구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명센터(IBC)는 정통성과 권위를 갖춘 세계 3대 인명기관 중의 하나로 영국 캠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난 40여년간 분야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인명사전을 출간하고 있다.

3 표원섭 교수, 연극 <아빠들의 소꿉놀이> 연출



연극학과 표원섭 교수가 극단 처용의 창단 30주년 기념작품인 연극 <아빠들의 소꿉놀이>의 연출을 맡아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우전소극장 무대에 공연을 올렸다. 이 작품은 해고당한 40대 후반 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다.

4 박호표 교수,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자문위원 위촉



관광경영학과 박호표 교수가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군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청주시문화재단은 역사, 관광, 생태, 공동체, 디자인, 행정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업에 관한 다양한 자문과 협력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은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김원중 교수, 전북도의회 주최 학술대회 주제발표



법학과 김원중 교수가 지난 6월 7일 한국국가법학회와 전북도의정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개혁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학술대회 및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가졌다.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무를 일원화된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드니스 라인하트 교수,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입장권 1호



연극학과 드니스 라인하트 교수가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호 입장권의 주인이 됐다. 지난 6월 3일 청주시청에서 열린 D-100일 기념행사에서 드니스 라인하트 교수는 행운의 1호 예매자가 되어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편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Something OLD Something NEW)'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40일간 청주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7 어일선 교수, K-뷰티 한류확산 세미나 참석



영화학과 어일선 교수가 충북 오송 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를 통해 보여준 'K-뷰티'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5월 24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K-뷰티 한류확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발전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어일선 교수는 종합토론자로 나서 화장품·뷰티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K-뷰티가 충북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Alumni News 동문소식

1 남기에 동문,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장 취임



남기에(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동문이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6월 11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남 동문은 "여성과 어머니로서 경제, 사회적, 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기에 신임회장은 청주대와 서원대, 목원대 강사를 거쳐 충북 다문화가정 공동대표, 충북새마을부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충청사회복지개발회 이사,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조규승 동문,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 영업본부장 취임



조규승(영문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조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실한 영업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은행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밀착한 영업활동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임 조규승 본부장은 청주지점장과 대전지점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대전과 논산, 공주, 세종, 계룡 등 우리은행 24개 지점과 7개의 출장소를 비롯해 총 31곳의 점포를 총괄한다.

3 김광홍 동문,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취임



김광홍(정치외교학과, 60년 졸업) 동문이 지난 6월 17일,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7년 6월 3일까지다. 김 회장은 청주대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청주시 부시장과 제천군수, 괴산군수, 제천시장, 충주시장, 충청북도 정무부시장, 충북과학대학장 등을 두루 지냈다.

4 유재풍 동문, 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 총재 취임



유재풍(법학과, 80년 졸업) 동문이 지난 6월 21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의 34대 총재로 취임했다. 유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3P(참여, 열정, 궁지)운동으로 지역과 개별 클럽의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재풍 총재는 '법무법인 청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군본부 19대 법무감과 청주변호사회 사업이사, 국민권익위원, 충북도선관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 총재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 간이다.

5 정지문 동문,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장 승진



정지문(경영학과, 89년 졸업) 동문이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지문 동문을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청주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및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해당 업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 김희수 동문, 충북 괴산군수 취임



김희수(법학과, 83년 졸업) 동문이 지난 7월 12일 제21대 괴산군수로 취임했다. 김 부군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괴산군의 균형발전에 발맞춰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가 되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괴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부군수는 1982년 충북도청 서무과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통상지원담당, 균형발전국 교통물류과장,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등을 지냈다.

7 박민섭 동문, 경북대학교 조교수 임용



콘서트스 강의의 일인자로 유명한 가수 출신 경영학 박사 1호 박민(본명: 박민섭) 동문(무역학과, 84년 졸업)이 경기도 남양주 소재 경북대학교의 경영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박 동문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22년간 KT 인재개발원, 지식경제부 연수원, 금융연수원 등에서 7000회에 달하는 강의를 해왔다.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청주대의 꿈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이 기부자들의 정성과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주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발전기금 종류

01 대학발전기금_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02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03 대학발전기금_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04 대학발전기금_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05 대학발전기금_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공연예술지원기금

◎연극/영화지원기금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작성한다.

◎급여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의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0-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Design Your Dream!



『 청주대학교가 당신의 꿈을 디자인해드립니다! 』

수시차	원서접수 2013. 9. 4(수) 09:00 ~ 9. 13(금) 21:00 <10일>
	실기고사 2013. 10. 3(목) 09:00 ~ 10. 6(일) 22:00
	합격자 발표 2013. 10. 15(화) 14:00 단, 일반전형은 2013. 12. 3(화) 14:00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학생중심대학

- 폭 넓은 장학제도 : 300여 억원의 장학금
- 최신 시설의 쾌적한 기숙사(생활관)
2,400여 명을 수용하는 아파트단지형의 기숙사
- 2,700억 원 투자, 최첨단 교육 인프라와 매머드급 캠퍼스 구축

문의 | 청주대학교 입학처 (043)229-8033, 8034

<http://www.cju.ac.kr/web/ipsi>